

## 통일소고

A Study of Korean Reunification

허 문 영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Korean reunification with the biblical worldview and propose the task of christian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we need the culture - transforming attitude about Korean reunification. It discusses that the reasons of reunification are the national historical task and the God's will. It explains the causes of north - south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backgrounds of recent north - south dialogue with four dimensions (world-wide, regional, internal, religious). It argues that the obstacles are disagreement between north & south about 'how' and 'what' to do for reunification.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Christian in Korea should devote himself in achieving the Korean reunification as a prophet, a priest and a king.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통일문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데 있다. 이러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와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정규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해 평소에 크리스찬 사회과학도로서 갖고 있던 단견들을 약술하려 한다는 것이 좀더 솔직한 목적이 될 것이다.

### I.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태도들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태도는 크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1)</sup> 첫째는 보수주의적(근본주의적) 태도 중 한 유형으로서, 하나님과 이세상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킨다. 즉, 현실을 근본적으로 분리된 2개의 범주, 곧 거룩한 것(HOLY)과 속된 것(PROFANE) 또는 성스러운 것(SA-

CRED)과 세속적인 것(SECULAR)으로 나눈다.<sup>2)</sup> 따라서 기도, 성경공부, 전도 등은 영적으로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결혼, 성행위, 정치, 예술, 사업 등은 세속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기독교인은 속된 정치문제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태도이다.

둘째는 보수주의적 태도의 또 다른 유형으로서, 신앙(믿음)과 지성(이성)을 극단적으로 분리시킨다. 즉, 믿음으로는 신앙생활을, 이성으로는 세속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고, 통일문제는 인간의 이성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비신앙적 태도이다.

세째는 진보주의적(민중신학적)태도로서, 예수를 사회경제사적으로 해석하여 민중이라는 특정 계급의 해방자로 본다.<sup>3)</sup> 따라서 통일문제도 민중주체적(계급론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태도이다. 이들 각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면도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적 태도들은 각각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인식이 결핍되어 있다. 진보주의적 태도는 예수님이 민중만이 아닌 전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필자는 통일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태도로 문화변혁적 태도를 생각한다. 이 태도는 예수를 문화의 변혁자(The Transformer of Culture)로 해석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전파 명령(대 위임 ; The Great Commission, 막 28:18-20)'과 '경천애인 정신(큰 계명 ; The Great Commandment, 막 12:29-31)'을 강조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최초인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말씀하신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 창 1:28, 2:15)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있으며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아니하였는데, 바로 이세상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본다. 즉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태도도 이런 맥락 속에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II.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통일 당위의 논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민족의 고통제거 및 동질성 회복, 외교, 군사,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력신장,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보장에 기여 등등.<sup>5)</sup>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런 일들은 통일 아닌 '평화공존'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통일은 왜 해야 하나?

첫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sup>6)</sup>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질서요, 명령이다(창1:28, 요15:12). 그런데 우리는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서 상호간에 가장 무서운 적,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린 현실 속에 있다. 이 증오성의 근본원인은 바로 분단에 있다. 따라서 분단을 극복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된다. 그러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

둘째, 민족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다.<sup>7)</sup> 19세기 후반이래 우리의 민족적 과제는 근대적 민족국가로의 전환이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략때문에 국가없는 민족이 되었고, 미.소의 분할강점때문에 분열된 민족이 되었다. 즉, 우리는 국가의 단절과 민족의 분열을 겪었다. 따라서 현재의 민족적 과업은 통일되고 독립된 근대적 민

## 필자소개



필자는 성균관대 법정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 학위 취득,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는 성균관대 학교와 강원대학교 강사로 있으며 춘천기독교학문연구회 지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죽국가 건설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통일이 선인 것'은 아니다.<sup>8)</sup> 왜냐하면 통일은 그 방법과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일이어야 하고, 동시에 독립된 근대적 민족국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Ⅲ. 남북 분단의 원인은 무엇인가?

통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분단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분단원인을 올바르게 기술하고 설명해야만 통일운동의 방향을 올바르게 처방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sup> 분단원인에 대한 제학설은 크게 넷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외세 결정론(외인론)이다.<sup>10)</sup> 즉 해방 당시 소련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의해서 분단이 초래됐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소련 책임설<sup>11)</sup> (한반도를 독점지배하려는 제국주의 정책을 처음부터 추구하고, 여기에 맞서 미국이 초기 타협정책을 포기하고 봉쇄정책으로 대결한 결과 분단됨. 따라서 분단의 주된 책임은 소련제국주의에 있음)과 미국책임설<sup>12)</sup>, 그리고 소, 미 책임의 절충설<sup>13)</sup> (미, 소 양국은 처음에 한반도상에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정부 수립 등으로 타협을 모색했으나, 쌍방이 모두 상대가 제국주의적 독점을 추구하고 있다고 오판하여 오판의 상승작용 결과로 분단됨)이 있다.

둘째는 내세 책임론(내인론)이다.<sup>14)</sup> 즉 분단원인을 외세의 작용에서 구하는 것은 타율적, 비주체적인 역사인식으로 본다. 따라서 민족사 내적인 원인에 좀더 강조점을 두는 입장이다. 요컨대 민족분단의 압축된 원인은 19세기 후반의 개화기와 식민지 시대와 민족해방 과정을 겪으면서 통일된 민족국가를 수립할 만한 민족적 역량을 구축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일제하 민족독립운동 분열설(독립운동 초, 중기에 있어서 상해임시 정부의 외교독립노선과 연해주 무장항쟁론과의 방법론적, 사상적 대립과 말기에 일부 형성된 민족연합전선도 해방후 스스로 분열함)과 해방후 한국정치 세력 및 지도자의 오판과 실패설(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통치에 대한 이해부족, 한반도 중립화 통일개념의 부재 등)이 있다.

세째, 복합설이다.<sup>15)</sup> 한반도 분단은 국제정치적 권력관계가 주도하고, 민족적 권력투쟁이 이를 도왔으며, 동족상잔으로 심리적 적대감이 축적된 복합형의 분단으로 보는 입장이다. 즉 민족

내부 역량이 미약한 상태에서 국제변수가 크게 작용했으나 미, 소 양국의 적극적인 정치적 분단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타협의 실패의 결과로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1945년 미소 군사점령 경계선인 38도선의 획정과 1948년의 정치적 분단의 확정을 거쳐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을 경험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깊은 심리적 적대감을 축적한 분단체제로 굳어졌다고 본다.

네째, 신앙적 관점이다. 한반도 분단이 강대국이라는 외세와 한반도 내의 내부 정치세력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나타난 것일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sup>16)</sup> 따라서 이스라엘의 분단(남유다, 북이스라엘) 원인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분단 원인도 우상숭배에서 찾는다. 즉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제 27회 총회는 평양서문 밖 교회에서 신사참배가 기독교 신앙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결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본다.<sup>17)</sup>

이상의 4가지 입장들을 검토해 볼 때, 한반도의 분단원인은 보다 복합적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를 4차원적(세계적 차원, 한반도적 차원, 국내적 차원, 신앙적 차원)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sup>18)</sup> 즉 한반도의 분단은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일본항복 접수의 군사적 편의를 위해 미국에 의해 3.8선이 획정되었고<sup>19)</sup>, 미, 소간의 전세계적 냉전으로 말미암아 고착화되어갔다. 또한 한반도적 차원과 국내적 차원에서 볼 때 1946년도의 좌우합작운동(우익: 김규식 좌익: 여운형)의 실패,<sup>20)</sup> 1948년도의 남북협상운동(남: 김구 김규식, 북: 김일성 김두봉) 실패<sup>21)</sup>로 말미암아 분단은 고착화되어갔다. 그리고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일제하 신사참배로 말미암은 우상숭배 죄와 해방직후 전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분단은 고착화되어갔다.

### Ⅳ. 통일논의가 최근 활발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문제는 민족문제(intra-nation a problem)이면서, 동시에 국제문제(international problem)이다. 즉, 한 민족내의 문제이면서 현실적으로 두 국가(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간의 문제이고 동시에 4강(미, 소, 중, 일)이 관련

된 문제이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통일문제가 부각된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4차원적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냉전체제의 쇠퇴와 미, 중, 소의 '신 대당쓰'시대의 도래를 들 수 있다.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85년 3월 취임 후 글라스노스트(개방)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주창하여, 국제적으로 화해와 협력에 의한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즉, 세계 여러지역(아프가니스탄, 동부 유럽, 몽고와 중소국경지대 등)에서 철군을 시도함으로써 팽창주의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있고, 작년 12월에는 미국과 중거리 핵 전력(INF) 폐기 협정 조인 등을 통해 탈냉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미, 소 화해 분위기 속에 중국은 해북은 반소감정을 털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작년 12월초 전기심 외무장관이 소련을 방문하고 금년에는 고르바초프가 북경을 방문하여 중소분쟁 이후의 악화된 관계를 정상화 하였다. 따라서 미-소, 중-소의 상황인식이 이처럼 모두 화해, 평화 분위기이므로 다른 지역 분쟁들도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둘째, 한반도적 차원을 들 수 있다.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중소대립을 이용하여 줄타기 외교를 함으로써 군사력 증강을 이루어 왔으나, 중소화해로 말미암아 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동시에 서울 올림픽 이래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는 만큼, 북한도 폐쇄적 전제체제를 어느 형태로든 변화시켜야 할 입장이 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82년도에 낙후된 경제의 발전을 이루고자 합영법을 제정하여 개방정책을 천명하였으나 비능률적인 경제정책과 대외신용도의 추락으로 말미암아 효과를 못 거두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고자 남북 경제교류에 나설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즉, 교역을 통해 북의 정치적 장벽을 돌파 및 국내정국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남북 경제교류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내적 차원에서 보면 통일접근 방안에 있어서 한국의 일방적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기능주의 모형(비정치적인 기능적 분야 즉,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통일을 추구)에서 신기능주의 모형(비정치적 분야에 정치, 군사 분야 포함하여 협력을 시도해 통일을 추구)으로 변화이다. 이에 따라 정치, 군사회담을 주장해 온 북측의 제안을 과감히 수용하게 되어 남북대화가 다시 활발해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있다. 북

한은 45년 이래로 추진해 온 '남조선 해방'을 위한 '민족해방전쟁'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일관된 통일전략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금의 여러방면에서 추진되는 남북교류(남북 국회 연석회의, 고위급 정치, 군사회담,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 제 13차 청년학생 축전 참가 회담, 정주영 씨를 비롯한 일련의 경제인 초청 등)에 대하여 환상적인 태도는 금물이다.

네째,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 민족에 대한 섭리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필자는 생각한다.<sup>22)</sup>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말씀하셨다. 우주시대인 지금 공간적인 땅끝이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땅끝이란 인위적 제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또는 우리에게 마음에서 먼 곳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이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니겠는가? 과거 우리는 회교국가지역인 중동이 열렸을 때,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북음전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손에 의해 열리는 북방을 다시 단순한 경제적 상대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 V.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한은 그동안 분단극복과 민족통일을 민족의 지상과제로 소리높여 외치오며 다양한 통일정책을 제안하여 왔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질화는 심화되고 평화통일의 전망은 더 멀어져 감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국내외에서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검토해 왔다. 그러나, 수많은 논문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통일에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그러면, 통일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일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이 전혀 다르고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sup>23)</sup>

통일논의에는 '어떤' 통일이냐는 내용상의 논의와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는 방법상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남북한 간에는 통일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통일이란 역사적으로 단일국가를 이루었던 경험있는 "분단국의 재통일"로 인식하는데 반하여, 북한은 "민족해방의 완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국가에 대한 이해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공통일 및 자유민주주의의 국가 건설 또는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 및 자유, 민주, 복지국가 건설로 이해하며 그 주체는 초계

급적 개념인 국민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건설로 그 주체를 계급적 개념인 인민으로 이해한다. 즉, 김일성은 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1)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2)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3)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에 있다고 밝혔다.

세째, 통일 방법의 차이가 있다. 남북한이 통일하는 방법으로는 (1) 단일적 통합(합병, 병합), (2) 복합적 통합(국가연합, 연방제), (3) 기능주의적 통합, (4) 신기능주의적 통합, (5) 수렴이론적 통합, (6) 중립화, (7) 적화통일, (8) 반공통일 등을 들 수 있겠다.<sup>24)</sup> 이 중 한국이 주장해온 것은 기능주의적 통일론으로 그 기저에는 반공통일이 함축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1974년 박정권의 8.15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1)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2) 신뢰회복을 위한 상호교류, (3) 토착인구비례 총선거로 통일 이룩을 주장한다. 이것은 남북한간의 개방, 교류, 협력을 통해 자유의 바람을 북한에 넘치게 하여 북한의 공산체제의 기반을 침식시킨 후, 인구비례 자유선거로 통일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반공통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이 주장해온 것은 연방제 통일론으로, 한국에 의해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연방제안이 제기된 시기와 그 선행조건에 있는 것이다. 즉, 한국측의 혼란기에 주로 제의되었다는 점에서 그 저의가 순수하지 못하다. (1960.8.14 연방제 제안, 1973. 6.23 고려연방제 제안, 1980.10.10 고려 민주 연방제 제안) 또한 (1) 주한미군 철수, (2) 한국의 반공체제 철폐, (3) 한국정부의 퇴진 및 인민정권 또는 애국인사들의 정부와의 협상등의 선행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대화통일이 아닌 일방적 흡수통일로 보여진다. 다시말해 북한은 통일과정을 민족해방과 사회주의 혁명을 동시에 포함하는 작업으로 인식한다.

네째, 부차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sup>25)</sup> (1)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의 기억, (2) 남북한 정치지도자들의 성품, (3) 남북한 상호간의 열등감과 불안의식, (4) 지나친 군사력, (5) 통일에 대한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적 인식, (6) 상호불신, (7) 외세 의존(한국-미, 일, 북한-중, 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섯째, 남북한 각각은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민주와 정의와 자유를 외면적으로는 표방하나 물량의 확대를 신

격화시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계층을 소외시키는 물질중심주의적 생활방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sup>26)</sup> 또한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일 개인을 신격화시켜 개인숭배를 강요하며, 인간의 개성과 존엄성을 말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VI. 통일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과제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등의 단순한 감상적 구호나 외침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과 처방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통일문제는 현실 문제이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통일'이란 현상상태(STATUS QUO)의 근본적인 전복을 목표로 하는 혁명적인 방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안보의 논리'와 '통일의 논리'가 조화롭게 정립되어야 한다.<sup>27)</sup> 또한 IV장에서도 말했듯이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통일논의는 단순한 정서차원을 벗어나, 분단 상황에 대한 냉엄하고도 사려깊은 연구와 하나님의 뜻(말씀)을 토대로 하여, 우리의 현실을 분석, 변혁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은 통일문제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골1:18) 교인은 그 몸의 지체이다(엡5:30). 주님은 이 땅에서 왕(요18:36-37), 대제사장(히5:5), 선지자(눅24:27, 벰후1:21)로서 일을 하였다. 그렇다면 주님의 인격을 닮고, 주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기독교인도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이다(벰전2:8-9).

첫째, 예수님의 선지자적 삶을 따라가야 한다(막1:15, 에스겔33:1-12. 파수군의 사명).

이를 위해서는 (1) 분단을 고착화, 영속화시킨 죄된 행위에 대해 우리 기독교인이 먼저 회개를 하고 또한 사회에 이를 회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북한은 6.25 전쟁도발로 6백만 이상의 인명피해와 1천만 이산가족이 생기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음을, 한국은 정권안보와 반공이데올로기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북녘동포에 적대적 태도를 취함과 관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토록 해야 한다. (2) 또한, 자금의 적대적 남북분단 상황에 있어서 양측의 정치 지도자들의 통일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sup>28)</sup> 따라서 정치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청지기로서 역할을 바로 감당할 것을, 즉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것을 기도하고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인본주의적 방법만으로 통일이 이루어

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따라서 성경적인 대안을 기독교자들이 공동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통일만 되면 모든 인류사회에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통일 지상주의 혹은 환상적 낙관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화목제물 정신을 따라가야 한다(엡2:16, 골1:20).

이를 위해서는 분단의 구조악을 극복하고자 하는 민족의 십자가를 기독교인들이 짊어져야 한다. 따라서 (1) 먼저 북녘동포에 대한 우리 심정상의 불신과 증오감을 극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신 속의 모든 통일대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다(마 5:44). (2)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고, 북녘 동포들을 위해 영육간에 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찾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빈약한 복음화 상태를 위해서는 선교를, 빈곤의 평등상태를 위해서는 경제교류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잠 A 25:21)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은 그동안 분단상황 때문에, 권위주의적 정권이 연속적으로 들어섰고,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 문제를 갖게 되었다.<sup>29)</sup>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독교인은 민주주의의 정착 및 성숙, 자생적이고 균형있는 경제, 사회윤리 및 문화 형성을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정립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회의 건설, 참된 민주화 없이는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추상적인 현실성 없는 논의보다 우선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서 문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정치공동체 형성으로의 노력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sup>30)</sup>

셋째, 예수님의 왕(만물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한다(마21:3).

이를 위해서는 (1) 인간중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사고를 떠나 하나님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로 돌아서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대결은 이데올로기적 차이와 대립에 기인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이데올로기란 무엇인가? 필자는 '인간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신념체제와 행동강령'으로 보고 싶다. 즉,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상사회(지상천국)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결과 지난 2-300년의 세력사가 전쟁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확립이 우리의 과제가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한 통일방안을 깊이 연구, 개발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고후10:5) 고 하셨기 때문이다.

(2) 우리의 통일국가 사회상은 예수님이 주 되시는 새로운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새로운 사회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공산주의란 생산수단의 공유화를 주장하는데, 그 기저에는 인본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을 포함한 이 천하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출19:5),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지기인 것이다(창1:28, 2:15).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은 생산수단의 신주화(시24:1)를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청지기적 삶을 민족 공동체적 삶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 주(註)

- 1) 채플린(J, chaplin)은 니버(H, R, Niebuhr)의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의 판점을 원용하여 복음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5가지 입장을 정리함.

그 내용은

1. 정치와 대립하는 복음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2. 정치와 긴장관계 속에 있는 복음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3. 정치 위에 있는 복음 (문화위에 있는 그리스도)
4. 정치를 정당화 하는 복음 (문화의 그리스도)
5. 정치를 변혁시키는 복음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으로, 5의 입장을 성경적 관점으로 봄.

Chaplin, Jonathan, "The Gospel and Politics: Five Positions"

(Toronto: ICS unpublished paper, 1985)

김영한 교수는 웨버(Robert.E.Webber)의 기독교 문화관, (The Secular Saint : The role of the Christian in the secular World)에서의 판점을 원용하여 성경의 메세지와 구체적 현실과의 관계에 대한 3가지 입장을 정리함.

그 내용은

1. 대립유형(분리주의적 관점): 근본주의, 율법주의, 신령주의

2. 일치유형(혼합주의적 관점) : 보편종교적 포용론, 민중신학, 기복신앙
3. 변혁유형(개혁주의적 관점) : 삼위일체적 신약신학  
으로, 3의 입장을 성경적관점으로 봄.  
김영한 ; "한국교회의 성경해석과 설교의 유형 분석 및 문화변혁주의적 착상" 한국교회 문제 연구원 편 '목회자와 설교'(서울; 풍만, 1987.) pp.17-64.
- 2) 왈쉬(B.Walsh)는 이원론(dualism)은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이 혼동된 것으로, 성경은 주님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의 이중성(duality)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봄.  
R.Middleton, B.Walsh(1984),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비전', 황영철 역(서울; IVP, 1987) pp.114-131
- 3) 안병무, "마가복음에서 본 역사의 주체" '민중과 한국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2). pp.160-161.
- 4) 김영한 교수는 현금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의 문화정신, 민족정신 및 영적 생동성, 성서적 신앙을 상실하고, 근본주의적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사적 민중운동의 이데올로기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지적. 따라서 성서적, 종교개혁적 신앙사상으로 되돌아 갈 것을 주장함.  
  
김영한, "서문"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편 '한국기독교와 신앙' (서울; 풍만, 1988) pp.1-8
- 5) 국토통일원,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서울; 국토통일원, 1987) pp.49-52.  
민병천 '민족통일론' (서울; 고려원, 1985) pp.23-24  
연세춘추, "통일의 당위성" 양호민 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1984) pp.11-16.
- 6) 안부섭씨는 '에스겔서36:1-38'을 중심으로 제2의 예루살렘(평양)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봄.
- 7) 이혁섭, '한국국제정치론' (서울; 일신사, 1987). pp.39-79.
- 8) 조선일보 1987.3.28일자 '문익환 목사 평양도착 성명전문'  
"---모든 통일은 선이라고 외쳤던 장준하의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면서 김일성 주석동지를 만나고자 합니다---"
- 9) Alan C.Isaak, Scope an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Homewood Ill; The Dorsey Press, 1975). pp.7-12. pp.26-31.
- 10) 이호재, "한국분단연구의 특징과 문제점; 분단원인의 재가설분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 11) 이우진, "한국의 국제신탁통치; 그 구상 및 분단의 기록" 국토통일원, '해방 5년사의 재조명; 한국 현대사의 정치사의 정치사회사적 인식' 1987.
- 12) 이 가설은 대충 전후 냉전후기라고 볼 수 있는 70년대 이래 미국의 월남전 개입을 잘못된 것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미국 대외정책에서 미소 냉전의 일차적 책임을 찾으려는 논리를 한국분단과 한국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정립되기 시작한 것임. 종전과 다른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수정주의 이론"이라 함. Bruce Cummings의 'The Origin of Korean War'는 대표적 저서임.
- 13) 이호재, '한국의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서울; 법문사, 1969)
- 14) 강만길, "민족분단의 역사적 원인" '분단현실과 통일운동' (서울; 민중사, 1984) pp.11-35.
- 15) 김학준, "한반도 분단의 대내외적 요인"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서울; 박영사, 1987)
- 16) 김영한, "분단과 통일에 대한 신학적 접근" '분단상황과 한국교회' 한국교회문제연구소편 (서울; 한국로고스 연구원, 1987)  
\*예레미야는 유다왕국을 멸하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묘사함  
\*이사야는 바사의 고래스왕을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루는 도구로 선포함
- 17) 1935.12. 안식교 합의 평의원회에서 신사참배 가결  
1936.5.25. 교황 비오 12세 신사참배 애국적 행사로 용허함  
1938.9.3. 감리교 총리사 양주삼 신사참배 교리

위반 아님 성명함

안부섭, '1988, 앞의 책', pp.22-33.

- 18) 이호재 교수는 한국정치의 요인을 내세적 정치력과 외세적 정치력으로 구분함  
이호재, 1967, 앞의 책 pp.25-26.  
하영선 교수는 우리의 삶을 국제체제, 남북분단체제, 국내체제의 틀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봄  
하영선 "냉전체제, 제3세계, 한국"  
김진균 외 '제3세계와 한국의 사회학'  
(서울; 돌베개, 1986) pp.37-38.  
양성철 교수는 국제정치, 주변정세, 남북한 관계, 남한내, 북한내 정치의 다중현실속에서 통일논의 해야 한다고 봄  
양성철 '남북통일 이론의 새로운 전개'  
(서울; 경남대국동문제연구소, 1989) p.5.
- 19) 조순승, "한국분단의 기원"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1984)  
pp.208-212
- 20) 좌우합작운동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독자적인 정권수립의 노력이 내부의 약점과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일단 좌절되고, 민족국가 건설을 담당해야 할 국내의 정치세력이 각기 계급적 이해에 기초해서 점차 그 대립을 심화해 나가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 대립을 지양하려는 노력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중도노선으로 추진된 통일운동이었음.  
강만길 "좌우합작 운동의 경위와 그 성격"  
송건호, 강만길편 '한국민족주의론2'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3) pp.62-108
- 21) 안철현, "남북협상운동의 민족사적 의미"  
최장집편 '한국현대사1' (서울; 열음사, 1985)  
pp.311-341.
- 22) 특별히 이러한 관점은 안부섭씨의 통일로 가는 길에 잘 정리되어 있음.  
제4장: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제6장 '부르짖으라 새 일을 가르쳐주리라'  
제8장: '통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참조.

- 23) 이상우 "민족통일의 과제" 이흥구의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서울; 박영사, 1984)  
pp.159-209.  
이상우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비교: 민족화합과 계급투쟁의 대결"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 박영사, 1987) pp.98-126
- 24) 국토통일원, 1985. 앞의 책 pp.83-99 참조.
- 25) Yong Soon Yim, "Politico-Economic Aspect of Korean Integration; Neo-Functionalism Revisited"(unpublished paper, 1989) pp.17-18.
- 26) Bob Goudzwaard, "Our Gods Hate Failed Us"  
W.A. Harper, T.R. Mallock  
(ed) Where are we Now? (Washingt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1981,  
pp.212-216. 참조  
조선일보 89.3.15. "한국민주주의 아직 모순 많다" 참조.
- 27) 김용욱, '국제환경과 한국정치'  
(서울; 법문사, 1986) pp.429-430.
- 28) Yong Soon Yim, 1989 앞의 글, p.25.
- 29) 김진균, 조희연, "분단과 사회상황의 상관성에 관하여" 변형윤의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 1985) pp.413-436 참조.
- 30) 이성구, "민족공동체 형성과 통일방안"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89)  
pp.13-14.